

# 광주·전남 금융기관 국감...지역경제·영세상인 지원책 요구

### 광주국세청, 체납증가·세수실적 부족에 높은 고액소송 패소율 지적도 위니아 법정관리 신속 회생 개시·전기차 부품 중기 지원 등 대책 요구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광주본부세관을 비롯한 광주·전남 금융기관 국정감사에서 지역경제와 영세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중부세 부과와 최근 체납 증가와 세수실적 부족 등이 지적됐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역 금융기관들의 관심을 요구했다.

16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는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지방조달청, 호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2023 정기국회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까지 광주지방국세청의 체납 금액이 1조12억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체납금액(9798억원)을 넘어섰다”며 “올해 8월 세수 실적은 전년보다 1조9535억원이 감소한 8조9700억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수 실적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7.9% 감소한 수준으로, 국세청 전체 세수 실적이 같은 기간 12.2% 감소한 것을 훨씬 넘어선다”며 세무 행정에 대한 혁신을 촉구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의 높은 고액소송 패소율을 질타했다. 양 의원은 “한 건당 200억~400억원에 이르는 초

고액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등 패소율이 일반 소송의 4배에 이른다”며 “특히 400억원대 소송에서 1심에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패소하는 등 대응을 잘 못해 수백억원의 세금이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의 시작부터 변론 내용과 재판 과정, 법률가 동원 등 소송 전 분야에 걸쳐 특별 감사를 해서 원인을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선례가 없는 고액 사건 1건이 법령해석 관련 결재 차이로 패소해 71%로 패소율이 상승했다”면서 “앞으로 선례가 없는 고액사건은 본청과 협력해 공동 대응하고 쟁점에 특화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침체에 빠진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조업 비중이 작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영세 소액 체납자는 인원이 78%에 금액은 11% 수준”이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시를 엄정하게 하되, 이들 영세 소액 체납자에 대한 유예 제도 등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위니아전자와 자회사 관련해 2600여 명의 실업과 2600억원의 체불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회생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도 금융기관 등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전남의 자영업자가 46만명에 이르는데, 4곳 가운데 1곳은 1년도 못 넘기고 폐업하고 있다”며 “광주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대상 정기 세무조사 부과 세액이 전국 지방청 가운데 1위인데,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중부세

부과를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에너지공단은 병아리 단계여서 잘 키워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다리를 부러뜨리는 격”이라며 “광주청장은 본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일반 은행에 지원하는 2% 저리 중계자금이 일부 시중은행에 집중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지방은행에 중계자금이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중앙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 경제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국세청과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 선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신세계 직원이 3층 프리미엄 패딩 팝업매장에서 노비스 의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신세계, 다양한 ‘팝업 스토어’ 세계로 초대

브랜드 ‘단톤’·프리미엄 패딩 등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16일 캐나다구스와 노비스, 단톤 등 다양한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29일까지 본관 1층에서 다이아몬드 로고로 친숙한 프렌치 워크웨어 브랜드인 ‘단톤’ 팝업스토어가 운영된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단톤 제품을 오프라인

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본관 3층에서는 프리미엄 패딩 팝업매장이 마련된다.

오는 22일까지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캐나다구스와 노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이탈리아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페트레이 팝업 스토어에서는 할인행사 및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은행, 오토빌 서비스 탑재 ‘오토빌Corporate카드’ 출시

### 사용내역 실시간 확인 등 제공 전월 실적 따라 K포인트 적립도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6일 ‘오토빌 서비스’를 탑재한 ‘오토빌Corporate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오토빌 서비스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손쉽게 회계처리 가능한 무증빙 경비처리 서비스를 뜻한다.

종이 영수증 없이도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출결의서 작성, 결제가 가능해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인별, 카드별, 계정과목별 사용내역 실



시간 확인 ▲업무용 차량관리 ▲개인사업자를 위

한 부가세 환급 지원 서비스 및 온라인 세무상담 서비스 등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전월 실적에 따라 K포인트(1000만원 미만 0.1%, 1000만원 이상 0.2%) 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토빌서비스와 개인사업자 서비스는 NICE디앤알 해당 서비스 전용 홈페이지(autobill.nicedata.co.kr) 또는 앱스토어 오토빌 앱에서 별도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4000원, 해외겸용 발급시 5000원이며 광주은행 영업점을 통해 발급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KJ카드 헬프센터(1577-3650) 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광주·전남 교역 영향 제한적”

### 한국무역협회, 1~9월 이스라엘 0.2%·팔레스타인 0.003% 불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광주·전남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전쟁이 계속되면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비중이 높은 지역의 무역수지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6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광주·전남 교역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비중은 0.2%로, 팔레스타인은 0.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역 비중이 작아 이번 분쟁으로 광주·전남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무역협회의 설명이다.

광주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교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는 이스라엘로의 수출이

다. 대부분 자동차 수출인데, 이스라엘이 광주 수출 및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5% 수준이다.

또 전남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교역 비중은 0.1% 내외였다. 주로 비료로 사용되는 염화칼륨의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었다.

다만 전남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86.9%가 염화칼륨으로, 올 1~9월 기준 이스라엘 수입의존도가 51.3%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는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산유국은 아니지만 중동 산유국의 전쟁개입, 원유 생산시설 및 수송로 차단 등 향후 영향에 따라 유가 급등할 소지가 있다는 것도 불안요소로 꼽혔다. 유가 급등시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비중이 높은

광주·전남권 무역수지가 악화할 수 있어서이다.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역시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교역 비중이 낮았음에도 전남의 염화칼륨 수입선에 변화를 초래했다”면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36.24 (-19.91)
↓ 코스닥	810.54 (-12.24)
↑ 금리(국고채 3년)	3.973 (+0.016)
↑ 환율(USD)	1353.70 (+3.70)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